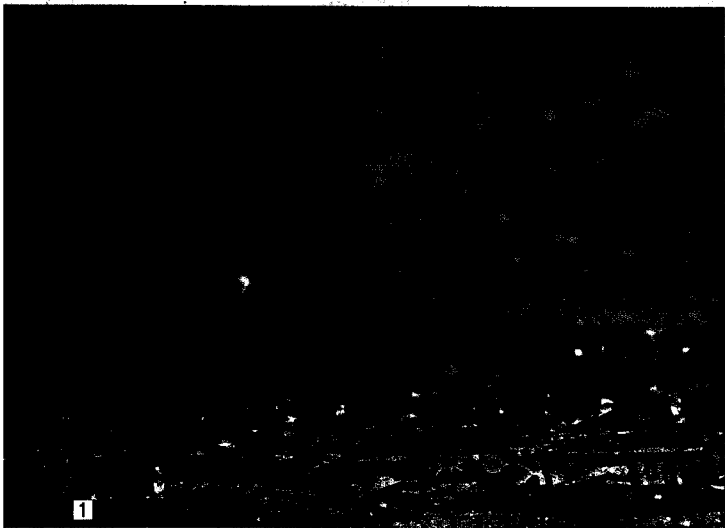


# 세계 인쇄문화박물관을 세운 나라

글쓴이 \_ 이종국 해천대 교수 · 한국출판학회 전임 회장



### 문자문화를 숭상하는 민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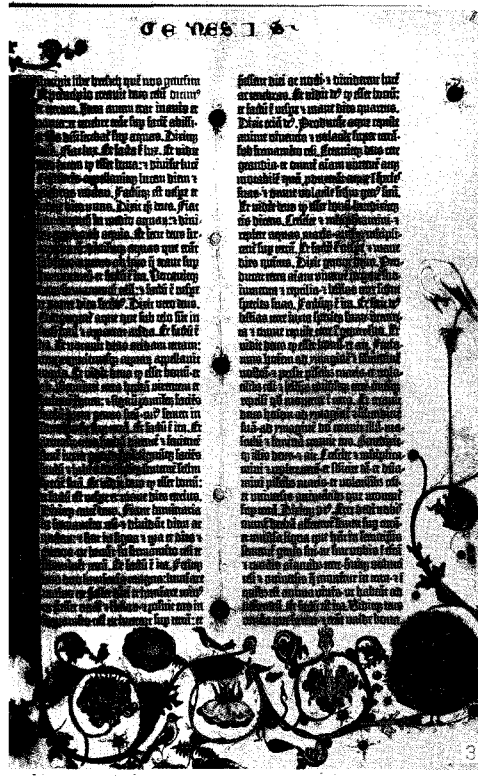
우리는 조상이 남긴 여러 빛나는 문화유산들 가운데 무엇을 먼저 꼽을 수 있을지 쉽게 말하기 어렵다. 우리의 오랜 민족사 속에서 기록되어온 문화적 증거들이 여러 다양한 범위로 확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문화유산들은 종류와 성격 면에서 함부로 어림하기조차 곤란하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금속활자와 인쇄술의 개발은 민족사의 으뜸가는 자랑거리로 꼽는데 주저함이 없을 것이다. 특별히 활자와 인쇄에 관한 키워드들은 한국인이 문화민족의 후예임을 말해 주는 긍지와 자존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멀리 익숙한 되살핌이지만, 금속활자로 찍어낸 가장 오래된 현존출판물인 <직지심체요절>(1377)의 경우 구텐베르크보다 70여년이 앞서며, 기록근거로 따지면 멀리 13세기에 이르

된 <고금상정예문>이 서구의 그것에 비해, 2세기나 앞지른 세계 최고(最古)의 기록내력을 보유한 국가가 우리나라이다. 금속활자로 인쇄한 현존출판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기록으로 증거케 하는 금속활자 제조 연한 또한 가장 오랜 내력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로 보아 당연히 활자문화의 선진국이 우리나라임은 강조해 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널리 공감하는 문화적 인식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아직 연구·분석이 진행 중인 <무구정광대라니경>(751) 역시 지난 1300여 년 동안 우리 땅에서 수장해 왔으니, 이 또한 예삿일이 아니다. 옛 신라인이 불국정토를 발원하여 나라와 백성의 평화를 축원하기 위해 가람 뜰에 탑을 조성한 다음, 그 위대한 물증을 장치하고 뒷날에 전승함으로써 그토록 오랜 삶을 이어오게 했다.

그렇게 여기저기에서 조상이 남긴 인쇄·출판문화 유산을 만날 수 있는 역사의 나라. 멀리는 단군왕검과 그 시대의 사적을 적은 것으로부터 삼국과 고려, 조선왕조를 거치며 나라 사



1. 활자이미지
2. 구텐베르크의 정서인쇄 모습
3. 구텐베르크 정서 본문
4. 무구정광대다라니경

정을 빼곡히 기록한 전적들이 큰 자취로 남아 있음을 본다. 이는 책의 문화가 융성했음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승서이념(崇書理念)이 널리 체화된 역사의 터가 이 땅이었던 까닭이다. 여북해야 책을 배우는 곳을 말하되 글방이라거나 서당(書堂)이라 했고, 선비들이 모여 학문을 담론하는 곳을 일컬어 서원(書院)이라 했겠는가. 나아가 석학이나 충정이 뛰어난 사람의 위패를 받들어 향사를 갖추는 곳 또한 서원이었으므로 그들은 죽어서도 서실에 머문 셈이다.

**문명발전과 인쇄술의 상호작용**

이와 같은 문화적 풍습은 나무에 글자를 새긴다거나 구리와 놋쇠 등의 쇠붙이를 녹여 팜땀이 마름질해 내는 활자인쇄술로 발전시켰다. 그것은 전형과 고정성(활자의 굳힘성)을 통한 복수인출을 꾀한 팜과 인쇄의 산물로 재현되곤 했다. 그렇게 각각의 활자들은 서로 어울려 표현하고자 하는 문맥을 이루고, 그것이 마침내 감피를 채우면서 여러 형식의 전적으로 태어나곤 했다. 이와 같은 출산을 말하여 산고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러한 과정이 힘겨운 고통을 동반하지만 세상 어디에서 이만한 명예와 보람을 얻을 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나라의 역대 제왕들은 등극함과 동시에 활자제작을 매우 중요한 국책사업으로 삼아 인행역사(印行役事)를 일으키는 일이 빈번했다. 그들은 문헌적 소통과 백성의 개안을 끌어올리고자 대대적인 주자사업을 추진했고 또 그러한 역사를 사명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국력을 기울인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예컨대,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계속된 고려대장

경 조판(雕板) 사례가 그런 경우로서 대표적이다. 조선왕조대에 이르러서도 계미자, 갑인자, 을해자 등-옛 활자들은 큰 줄기로 보아 70여 종 정도이지만, 서로 다른 유형의 것들을 취합하면 무려 300종을 상회할 정도였다. 조선 7대왕인 세조의 경우, 그가 재임한 14년 동안 정축자, 무인자, 을유자 등을 잇달아 주성하여 활자 인쇄문화에 연속적인 치적을 남기기도 했다. 고래로 활자주조와 인행사업을 관장하는 국립기관만도 아주 다양한 편력을 거쳤다. 내서성, 비서감, 예문관, 전교시, 그리고 서적원 등을 거쳐 교서관, 전교사, 주자소, 규장각과 홍문관 등이 그런 기관들이었고, 거기에서 특별히 뽑힌 역량 있는 엘리트들이 나라의 인쇄·출판사업을 이끌었다.

이렇듯, 우리는 예부터 문자활동을 숭상하는 나라였고 이를 후대에 전하는 인행사업을 크게 중시했다. 이러한 발견은 그저 낭만적인 자긍이 아니다. 예컨대, “책을 천하게 여기면 (홀대하면) 부모를 천하게 여기는 것과 같다(冊賤者父賤者).”고 했다든지, “책을 뛰어 넘는 것은 도둑이나 하는 짓(冊越者盜者)”이라 일러 온 것도 범연한 지목이 아닌 것이다.

결국, 다시금 되짚는 바이지만 지식매체를 조성하는 일은 인쇄술의 몫이었으므로, 이것에 함의된 문화적 지향성이야말로 쉽게 평설하기 곤란하다. 정말 막중한 영향력을 끼친 수단이 인쇄술이요 그에 따른 출판활동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명한 출판학자인 허버트 베일리(Herbert S. Bailey, Jr)도 “인쇄술은 문명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문명은 또한 인쇄술에 기여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지적은 문명발전과 문자의 공표활동이 긴밀한 관계로 상호작용한다는 사실을 웅변한 명쾌한 선언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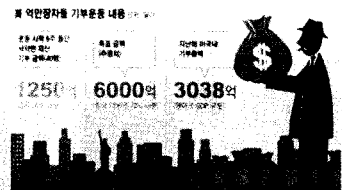
우리는 문자문화를 사랑하는 오래고 특별한 유전자를 내림 받은 민족이다. 조상의 뛰어난 과학기술은 단별의 활자배열만으로 많은 분량을 찍어내는 복제술을 창안했다. 바로 그러한 슬기를 오늘에 재발견한다. 그것은 세계문명사에 있어 경이적인 업적과의 만남인 것이다.



“내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합니다”

### 美 갑부 40명, 6주만에 1250억달러 '기부 약속'

미국 40대 최고 부자들 40명이 6주 만에 1250억달러(약 150조 원)의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부 약속이다. 이들은 '미국인쇄문화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이 박물관은 인쇄문화의 역사를 보존하고, 인쇄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인쇄술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인쇄술의 미래를 모색할 것이다.



워런 버핏과 빌 게이츠가 주도  
세부 GDP와 맞먹는 거액 기부  
“농부들이 수확을 맘에 들러주듯  
우리로 재산을 사회에 환원”

이들 억만장자 기부운동이 기대된다. 버핏과 게이츠가 주축이 된 이 운동은 '미국인쇄문화박물관'을 설립하기 위해 기부할 예정이다. 이 박물관은 인쇄문화의 역사를 보존하고, 인쇄술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또한, 인쇄술의 사회적 영향을 연구하고, 인쇄술의 미래를 모색할 것이다.

5. 적자 표지와 본문  
6. 조선일보(2010. 8. 6)에 게재된 기부관련 기사

### 세계적 인쇄문화박물관 건설을 위해

이제 본줄기를 열어야 할 차례이다. 당겨 말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누려온 유구한 인쇄문화를 현양하되, 그 역사적 증거들을 드러내어 널리 확인케 하고, 그것이 지닌 의의를 살피는 '집합소'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집합소란, 우리 민족이 창안하고 경험해 온 인쇄·출판문화의 자취와 그 물증들을 널리 끌어 모은 인쇄문화박물관을 말한다. 그것도 활자문화의 시원곡답게 이왕이면 세계제일의 인쇄문화박물관 건설을 현실화하려는 것이다. 더구나, 우리의 인쇄문화는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문화원형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러한 지향은 더욱 현실적이다. 나아가 우리가 누려온 인쇄문화야말로 국가의 상징적인 브랜드로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활자인쇄술에 부여된 문명사적 가치와 세계최고란 평가는 구텐베르크의 후광에 기대 바 컸다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렵다. 즉,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사회혁명을 일으킨 근대문명사의 첨병이었다.”라는, 이른바 맥퀘일(McQuail, Denies)식 논리로 종교개혁이나 문예부흥, 과학문명의 혁신을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이끌었다는 보편적 인식에 우리 자신이 편입되어 있었다는 점을 말한다. 물론, 우리도 선조들이 창안한 금속활자에 대한 가치와 금지를 내세우지만, '구텐베르크의 혁신' 쪽에 의존하다 보니 무엇인가 공색하고 외로운 주장만으로 기울어 있었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왜 그런가? 그것은 두 가지 문제로 압축할 수 있다. 첫째는, 우리의 인쇄문화가 어떤 점에서 앞선 것인지를 내세워 설명해 줄 만한 좀 더 종합적인 '증거의 장'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실현을 지향하여 우리 인쇄술에

대한 보다 치열한 연구·접근활동에 소홀했던 탓이다. 다시 말해서, 인쇄박물관이 있긴 하나 출판박물관 등 관련 전시관을 통틀어 본다 하더라도 고작 2~3개 관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이들 박물관들은 저마다 특색을 전지하면서 민족문화의 발자취를 전파하는 데 앞장서고 있음을 본다. 그런데 이만한 범위는, 건뭇하면 '활자-인쇄문화의 종주국'이라 내세워 운태·비하여 그저 반약한 실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두루아는 바와 같이, 문화선진국일수록 여러 유형의 인쇄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지 않는가.

이러한 문제들을 짚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현안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규모와 내용면에서 세계 제일의 인쇄문화박물관을 갖추는 일이다. 요컨대, 우리의 확고한 랜드마크로 구실할 '세계인쇄문화박물관'을 건설하려는 제안안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 박물관 건립을 위한 아름다운 기부들

북경의 다싱(大興) 지구에 가면 印의 전서체안 印자 모형으로 설계한 중국인쇄박물관이 우뚝 서 있다. 이 박물관은 연건평면도 8,100 평방미터에 이른다. 원래 1992년 5월부터 4년간에 걸쳐 건축공사가 진행되었으며, 1996년 6월 1일에 개관을 보았다. 당시 장쩌민(江澤民) 정부의 야심찬 문화사업 프로젝트에 의해 이룩된 거대박물관이다.

이 박물관에 들어서면 우선 중국인들이 활자인쇄술의 부조라 숭상하는 북송인 발명가 피생(畢升)의 동상이 서 있고, 상고시대에서 중·근대, 그리고 현대와 뉴미디어에 이르기까지 인쇄문화의 변천과정을 역사의 흐름 따라 알아볼 수 있도록 전시하고 있다. 물론, 그들이 전제적인 물증으로 내세우곤 하는 '1966년 10월 한국 경주 불국사 석가탑 발현'의 '무구정광대

다라니경』 복제본도 담담히 방문객들을 맞이해 준다. 그것이 '당인본(唐印本)'임을 애써 내세우는 설명문을 보게 되면 야릇한 기분마저 느끼게 된다. 아무리 살펴보아도, "신라인은 이 위대한 인쇄권자를 1300여년이나 지켜 주었다."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도 우리로 하여금 미망의 아쉬움을 느끼게 한다. 부질없는 욕심인가. 뭐라 할지, 그러한 심정이야말로 역사의 냉엄한 권력 앞에서 무력한 소이가 아닌가 한다.

중국인쇄박물관은 당시 총 2708만 위안(1996년 환율 기준 330만 달러)을 국내외를 통한 모금방식으로 건립했다. 특기할 만한 것은 해외의 화교기업과 그 화상(華商)들이 적극 나섰다라는 점이며, 많게는 700만 위안, 적게는 160만 위안에 이르기까지 폭발적인 모금행렬이 이어졌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국내 및 홍콩·대만 등지의 기업들과 뜻있는 인사들에 의한 기부금도 다투어 출연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특히, 홍콩 기업인 허잉제(何英杰)의 경우는 200만 홍콩달러를 쾌척했고, 상하이 상인들은 58만 위안을 모아 전달하기도 했다. 따라서 중국내의 각 기업군들도 적극 나서기는 마찬가지였다. 사회주의 체제하의 기업문화를 견지해 온 나라가 중국이고 보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워싱턴 D.C.에 있는 세계최대 규모의 스미소니언박물관은 어떤가. 1846년 영국의 과학자 제임스 스미슨(James Smithson)의 기부금으로 설립된 것이 이 박물관이다. 방대한 역사적 유물과 각종 기록물들(이 박물관의 아카이브센터에 소장), 순수 예술작품들의 정수들을 소장·전시하고 있는 이 박물관 역시 당초부터 기부금에 의해 설립되었다. 스미슨 자신은 미국에 온 일이 없었으나 사망(1829) 당시 55만 달러의 유산과 "인류의 지식을 넓히기 위한 시설을 워싱턴 D.C.에 세우고 싶다."는 유언을 남김으로써 오늘의 스미소니언박물관으로 이룩되었다. 전시품목만 모두 1억4천여만 점에 이른다고 한다.

이집트 고대미술품과 천 세계의 역사적 자료들을 두루 소장하고 있는 대영박물관의 사례를 보자. 1759년, 이 박물관의 건립기금 모금운동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로버트 코튼 경(Sir Robert Cotton)이 수만 권의 장서를 내놓았고, 이에 더하여 옥스퍼드의 로버트 할리(Robert Harley) 백작의 경우는 그가 소장하고 있는 방대한 분량의 도서 및 수집품들을 기증했다. 대영박물관은 이들 두 사람의 기증품들을 기반으로 하여 오늘의 거대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1870년에 이룩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박물관도 그런 점에서는 예외가 아니다. 당시 파리에 나가 있던 일군의 예술가들이 프랑스의 우월한 박물관문화에 자극을 받고 "뉴욕에도 박물관이 있어야 한다"는 뜻을 공감하여 설립기금 모금에 돌

입했다고 한다. 이 박물관도 이집트 고미술품을 비롯하여 중세,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술품들과 방대한 인쇄물들, 각종 장서들, 그리고 수만 종의 역대 정기간행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러한 사례들로 보아 특별히 인쇄박물관은 말할 것도 없지만, 다른 목적의 박물관도 인류가 남긴 인쇄·출판문화 유산을 필수요건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그것이 기본적인 자산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은 뜻 있는 인사들에 의한 능동적인 기부활동에 힘입어 설립되었다는 사실이다.

박물관의 건립은 정부와 민간,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실현하고자 하는 기업이 힘을 합쳐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이는 역사적 유래들에서도 익숙하게 점검되는 일이기도 하다.

#### 기부행위와 인쇄문화박물관

최근 언론매체들은 <미국 갑부들 40명의 아름다운 선언> 소식을 잇달아 전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런 버핏 회장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 회장 부부가 주도하는 '기부약속(The Giving Pledge)' 운동에 호응하여 불과 6주 동안 40명의 미국 갑부들이 1250억 달러(약 175조 원)를 내놓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이는 페루의 국내총생산(GDP)과 맞먹는 거액이다.

이렇듯, 거액기부에 나서고 있는 미국 기업인들의 모습은 그저 "부자나라 사람들이므로 그럴 만하다."라고 말하기 곤란하다. 최근 우리 사회의 이슈로 등장한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맞물려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이다.

미국 갑부들의 기부이유는 감동적인 대가 있다. 워런 버핏은 "1% 대 99%의 행복론을 소개하면서, "나는 내가 가진 주식의 1% 이상을 쓴다고 해도 행복의 질이 높아지지 않겠지만, 나머지 99%는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털어놓았다. 많이 내놓을수록 더 행복해진다는 '기부의 철학'인 것이다. 부동산재벌인 엘리 보로드 부부는, "큰 재산을 누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이를 지역사회나 국가 혹은 세계에 돌려 줄 수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행위가 특권이며 행운"이라고 설파했다. 또, 비즈니스 와이어 창업자인 로리 로키는 "농부들이 수확 후 비료를 뿌려 땅을 가꾸듯 자신도 재산을 사회에 되돌리는 것일"이라고 말한다(<조선일보> 2010. 8. 6., A2면 참조).

이렇게 그들은 돈을 써야 하는 방법, 가진 자들의 사회적 책임, 나눔을 통한 진정성 등에 대하여 진솔하게 설명한다. "선한 일을 행하는 집안에게는 반드시 남는 경사가 있다(積善之家必有餘慶)"고 일러 왔듯이, 이러한 논리는 미국의 갑부들이라 해서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것 같다.

새삼스런 지적이지만, 미국식 기부행위는 우리 사회의 부자와 기업인들을 돌아보게 만든다. 우리 부자들도 기부행위에 지나치게 인색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러나 개인재산이 아닌 기업출연금에 대부분이라는 것쯤은 두루 알려진 사실이 아닌가. 이런저런 사회복지 모금단체 등에 내는 거액의 기부금도 그 대부분이 그룹이나 임직원에게 의한 것이며, 개인 명의로 내는 일은 희소한 실정이다. 어쩌다 내는 개인기부마저도 비리 등에 따른 사회적 지탄을 모면하기 위한 경우여서 순수한 감동을 주기 어렵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개인재산을 흔쾌히 내놓는 미국의 사례와는 대조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기업인들의 기부행위에 대하여 선망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의 진정한 기부자가 나서서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꿈을 꾸다보면 지나친 것일까. 가까운 장래의 어느 날 “희망그룹 김철수 회장, 세계인쇄박물관 설립기금 100억 원 출연” 하는 감동적인 낭보를 기다린다. 아울러 기대하는 것은 액수가 문제 아닌, 그러한 소망이 정착 기우가 아니기를 바라고 싶다. “문화부, 발 벗고 나서다”, “과주 출판도시-인쇄산업진흥지구 세계인쇄박물관 유치 작전 돌입”, 이런 타이틀도 신명나는 소식들이다. 바라건대, 그저 꿈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고대한다.

거듭 말하지만, 문화를 사랑하는 이 시대의 한국인이야말로 세계인쇄박물관을 세워 후대를 위한 유구한 자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 그것은 하나의 우뚝한 랜드마크로 한국문화의 표상이 되도록 해야만 한다. 한국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문화적 대안으로서 이처럼 효과적인 방법도 없다는 재확인인 것이다.

#### 세계인쇄문화박물관 설립, 나라의 미래 위한 대역사

미래는 과거와 현재의 바탕 위에서 존재한다. 그래서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 없는 미래 또한 없다. 과거, 현재, 미래를 통틀어 역사의 연계적 따라갈 때, 특별히 중요한 문제는 보다 바람직한 미래건설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역사학자 카(Carr, E. H.)는 말하기를 “역사란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들여다보고 미래를 조망하는 데서 성립되는 것”이라고 했다. 역사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박물관의 경우도 그러한 유물적 인식에서 중요하게 과거를 돌아보아 미래를 길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 박물관이기 때문이다. 인쇄박물관의 역할이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런 점에서 더욱 새롭다.

활자 인쇄문화를 박물관에서 살필 때, ‘오늘 나의 디지털시대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그에 대한 적절한 해답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런데 이러한 의구는 곧 “역사란 무엇인가?”라고 묻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이젠슈타인(Eisenstein, E. L.)에 의하면, 인쇄술은 문명사의 변용요인(an agent change)라 했고, 슈타인버그(Steinberg, S. H.)도 “인쇄문화사(구텐베르크 이후)야말로 인간생활의 모든 영역에 관계하고 깊숙이 스며들었다.”라고 말한 바 있다. 나아가, “인류문명의 시원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내용을 기억해 내고 널리 전한 것 또한 인쇄·출판문화의 힘”이라고 힘주어 지적했다. 그 중심인자로 역할한 활자의 위상은 현재와 장래의 문명사를 이어갈 첨단유전자가 아닌가. 이는 다시 새로운 지향을 지목하는 아이콘인 동시에 놀라운 아우라(aura)\*와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발터 벤야민에 의하면, ‘아우라’란 “개성적인 고유한 본질 또는 영험한 기운”이라 했다.).

활자인쇄술은 당대의 첨단기술로 기록된 물증이기도 하다. 일본인 학자 이도오(伊東) 등이 편찬한 『과학기술사 사전』에 의하면 세종시대의 창조적 성과를 소개하여 주목된다. 즉, 1400~1450년 사이에 동아시아에서 거둔 주요업적들 가운데 조선이 최다 점유범위인 29건임을 밝혔다. 따라서 중국은 5건이고, 일본의 경우는 등재된 업적이 보이지 않는다(0건).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에서 기록된 29건 가운데 계미자(1403), 경자자(1420), 갑인자(1434) 등 금속활자들이 포함되어 있다 \*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승철, <금속활자 공화국>, 코리아, 문화재 사랑(Vol. 67), p. 31 참조.). 이는 첨예한 과학기술의 성과인 것이다.

인쇄술은 가장 빼어난 기억의 재생방법이다. 오늘의 전자기술도 결국 인쇄술적인 ‘칩’을 응용하여 기록한 진화·팽창 현상일 뿐이다. 이른바, 아날로그적인 것의 대표적인 경험인 인쇄술에 의한 사상과 감정의 공표·수용과정이라 할 때, 디지털적인 것도 그것(인쇄술)에 덧입힌 하이테크 현상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 둘의 위상은 하나의 일련선상에서 이행된 문명적 과정이라 이해된다. 디지털시대에 아날로그적인 것을 정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이유도 그런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있다.

이 때문에 일찍부터 활자 인쇄문화를 육성·발전시켜 온 우리 한국인이 밀어나가야 할 문화적 중대과제로 세계인쇄박물관 건립을 꼽아야 한다. 이와 함께 문명사의 실질적인 내용을 포용한 <세계인쇄문화대백과사전> 편찬도 현실화하자는 주장이다. 그래서 구텐베르크의 성을 뛰어 넘는, 우리가 활자문화의 선진국임을 널리 알려야 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보다 향상된 문화향유를 위한 미래에의 비전을 터놓는 데 요청되는 매우 중요한 결과물인 것이다. ◉